

2013 / 5 / 12

날씨: 조금 흐림

10322 일진규

나는 오늘 가족들이랑 재이브엔이라는 중국집에 갔다  
 우리 거기서 간소새우, 매운짜장, 탕수육, 짬뽕을 먹었다  
 거긴 덩마가 아는 불이 운명해서 좀 싸게 먹었다  
 진짜 맛있었다. 탕수육 튀김이 많고 간소새우도 마왕가  
 였다. 아버지는 배 곯은 맛을 좋아해서 보통 밥을 드실 때  
 좀 맵게 먹는다. 인라인 말하지만 말기썬지가 한 4년  
 인데 지금 썬지가 어색하고 그렇다. 이걸 읽는 누군가는  
 이해해 주길 바라며 계속 썬다. 나는 매운짜장을 먹는데  
 하나로 맵지 않았어. 넘마는 우리것은 뻥이 먹었어 아들  
 재이브였다